

시론



김희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前 광주지법 차장검사

오징어게임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고 있는 전 세계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심지어 외국드라마 인기가 높지 않은 인도에서조차 1위를 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다.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이용해 넷플릭스 온라인스토어에서는 공식굿즈 판매까지 시작했다. 주인공인 기훈역의 이정재가 입었던 456번이 적힌 티셔츠,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 담긴 티셔츠, 전통놀이 '오징어 게임' 모양들이 그려진 티셔츠 등 10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중국 회사들은 할로윈데이를 겨냥하여 오징어게임 속 의상을 대량 만들어 내고 있다.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투자해 만든 드라마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이다. 제작비는 약 2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의 경우 흥행여부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만

한국문화 vs 한국정치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흥행에 따른 추가수익은 넷플릭스가 독식하는 구조이다. 판권과 저작권 등은 모두 넷플릭스가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넷플릭스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볼 것만도 아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 투자하지 않았다면, 넷플릭스 게임은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징어 게임의 대흥행은 넷플릭스에게 구독자 증가와 추가상승이라는 큰 이익을 안겼다. 갈수록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넷플릭스의 성장 한계론이 거론되었지만 오징어 게임의 유례없는 흥행은 이러한 위기론을 불식시켰다. 그리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아주 저렴한 제작비로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익도 크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은 기대에 못 미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능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에 제작 단가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제작계약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능력은 영화부문에서는 이미 명성을 떨쳤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2019

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한국영화 100년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개 부문에 수상하였다. 영화 '미나리'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운여정이 여우조연상을 받는 전 세계 석권은 비단 콘텐츠 부분만이 아니다. 대중가요는 일찌감치 한류 열풍을 불러 일으키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현재 BTS는 우리나라에서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인기가 더 높다. 우리나라 아이들에 대한 팬덤층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어 배우려는 외국인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문화 전성시대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문화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의 대중문화만큼 세계 최고인가?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의 계절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을 한창 진행 중이다. 경선에서 각 경쟁자들은 정책 경쟁보다는 화력의 대부분을 다른 경쟁자의 약점을 공격하는데 집중한다. 간간이 정책공약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동소이하다. 그러다 보니

서로 표절이라고 경쟁자를 공격하며 한국영화 100년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개 부문에 수상하였다. 영화 '미나리'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운여정이 여우조연상을 받는 전 세계 석권은 비단 콘텐츠 부분만이 아니다. 대중가요는 일찌감치 한류 열풍을 불러 일으키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현재 BTS는 우리나라에서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인기가 더 높다. 우리나라 아이들에 대한 팬덤층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어 배우려는 외국인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문화 전성시대다.

홍인화의 '5월이야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연구실장

'5·18기록물'에 대한 관심 잊지 말자

부터 반전투한 음모 정보를 입수했다. 이범준 장군으로 묘사된 인물은 당시 국방부 방산차관보였던 이범준 전 교통부 장관으로 추정된다. 제보자의 신원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4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국 정부의 문서는 계속 비밀해제되고 있다. 또 시민들의 기증도 이어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다양한 출처와 유형이 있으며 5·18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록물 생산자의 안위 문제로 보관 주체가 수 차례 변경되고 사라졌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중요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약 4백만여 건에 달하지만 지난 41년 동안 대부분이 원본 상태로 분산 보관되면서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록물이 보존되고 보관돼 있어 열람과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원본 상태로 보관만 하고 있어 적극

적인 열람과 활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 누구나 5·18민주화운동의 다양한 기록물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전 세계의 학자들에게 질 높은 연구자료를 제공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쉽게, 빠르게"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개방형 보존서고를 확충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록물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5·18기록물은 '인권기록유산'이다.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당시,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한 것처럼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한국의 민주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계의 학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전환기의 정의

(transitional justice)'로 과거 청산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80년 5월의 광주 정신이 세계정신이 되도록, 즉 대한민국 미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5·18기록 유산의 디지털 보존과 관리는 5·18기록물에 대한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이다. 원본을 보존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공유, 활용, 확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록관(archive)은 기록의 무결성 보존을 기록관의 핵심적인 역할로 여겨졌으나, 오늘날 기록관의 패러다임은 기록정보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면 홀로코스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5·18민주화운동기록관도 5·18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5·18 기록을 남기는 것 못지않게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또한 5·18 기록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社說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에서 얻은 교훈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경호 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고분양가, 사업자 변경, 특혜 논란 등으로 본래 의미가 바래졌다고 꼬집었다. 이용섭 시장은 답변을 통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자 선정과 사업계획 변경 등 모든 절차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최대 규모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앙공원 1지구, 광주시의 주도적인 로드맵 부재와 미숙한 행정이 자초한 결과물이 아닌지 재차 도마위에 올랐다. 사업 제안 당시부터 민간사업자의 방식에만 의존하며 고분양가 프레임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광주시는 2017년 8월부터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25개소에 대해 추진방향을 설정했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모두 9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결정했다. 공익성 확보를 위해 비공원시설면적을 10%로 낮췄고 중앙공원 1지구는 8%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사회의 정서와 동떨어져 투기를 조장

'단계적 일상회복' 선제 대응에 나선 전남

정부가 '위드(With)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전환 방침을 정한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전남도가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로도가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키로 해 주목받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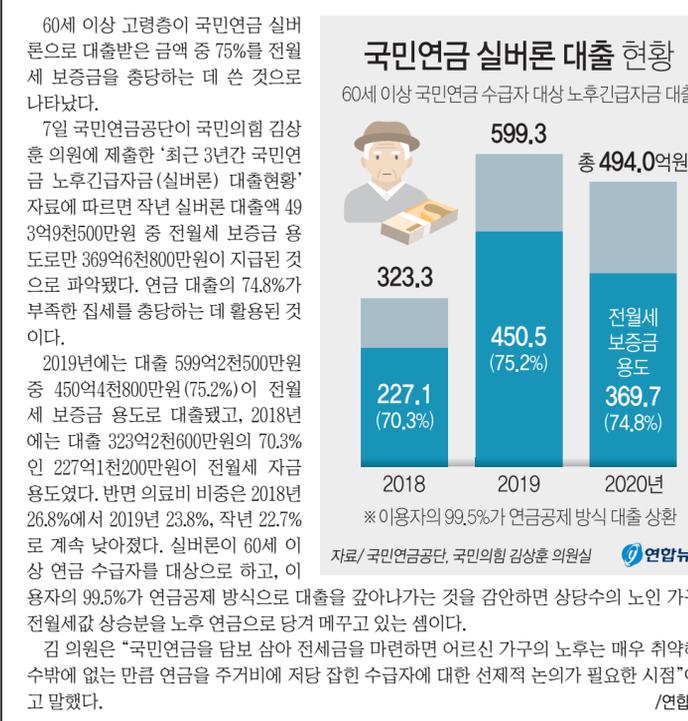
위험군 추가 집중(부스터샷)도 진행한다. 또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며 병상 추가 확보 및 재택치료 등 의료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정부는 위드코로나 시점을 11월 둘째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주 개천절 연휴에 이어지는 한글날 연휴, 그리고 가을 행락철 확산세가 변수다. 유행이 악화될 경우 이달 말 일일 확진자가 5천명 안팎에 달할 것이라며 전망도 제기된다. 만일을 가정해 확진 규모가 폭증한다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백신 접종이 관건인 바,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위드코로나는 국민 70%(18세 이상은 80%) 백신 접종 완료, 고령층 90% 이상이 최소 기준이며 항체 형성도 고려해야 한다. 전남의 경우 도민 184만명 중 145만명이 1차 접종을 끝내 80.3%를 나타냈고 2차는 61.7%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성인 90.4%가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이다.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일상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먼저 도민 90% 접종을 목표로 4분기 박차를 가한다. 대상자는 30만2천925명으로 18세 이상 미접종자 20만97명, 소아·청소년(12-17세) 9만6천281명, 임신부 6천547명이 포함됐다. 백신 효과를 유지하고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령층·고

위험군 추가 집중(부스터샷)도 진행한다. 또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며 병상 추가 확보 및 재택치료 등 의료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정부는 위드코로나 시점을 11월 둘째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주 개천절 연휴에 이어지는 한글날 연휴, 그리고 가을 행락철 확산세가 변수다. 유행이 악화될 경우 이달 말 일일 확진자가 5천명 안팎에 달할 것이라며 전망도 제기된다. 만일을 가정해 확진 규모가 폭증한다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백신 접종이 관건인 바,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국민연금 긴급대출의 75%는 전월세 보증금에 썼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현장칼럼



김영돈

광주 동부소방서장

환절기 불청객(不請客)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습관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이 심근경색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혈전에 의해 심장 근육의 일부가 괴사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심장 근육 조직이 불안정해져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해 병원 도착 전 환자의 30~40%가 사망하는 무서운 급성 질환이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으로는 어지러움이나 두근거림, 가슴 통증이 약 20분 이상 지속되고, 목과 턱으로 통증이 전이되는 방사통, 호흡곤란 및 식은땀이 동반되는 것이 관찰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약물 투여, 스텐트 시술로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준다면 심장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심장 근육의 괴사 진행을

막고 좋은 예후를 볼 수 있다. '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가장 능숙한 의사지만 병을 예방하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의사이다'라는 영국의 역사가이자 성직자인 토마스 풀러의 유명한 명언처럼 신속한 응급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먼저 흡연자는 금연을 실천하자. 흡연은 혈관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소판 및 응고 체계를 자극해 혈액순환에 지장을 줌으로써, 고혈압을 유발해 발생률을 높인다. 특히 하루 1갑 이상 흡연자는 발생률이 3~6배 더 높다고 한다.

식사는 가능한 저염식으로 하고 채소, 생선 등을 섭취하자. 일일 나트륨 섭취량 권고량(2000mg, 소금 5g)에 따라 김치, 짬뽕, 찜갈매기 음식은 최소한으로 섭취하고 대신 심해 빠른 시간 안에 약물 투여, 스텐트 시술로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준다면 심장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심장 근육의 괴사 진행을

산)가 들어있는 생선으로 단백질을 대신한다. 더불어 적당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갖자. 무리하지 않고 하루 30~60분 1주일에 3~4일 이상 꾸준히 운동하면 혈압을 낮추어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신체를 가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취미활동을 만들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데 이것은 우리 신체의 면역 시스템을 저하시키고 특히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코로나19로 모두의 관심이 건강에 집중된 가운데 일상 속 작은 실천과 습관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첫걸음이자, 이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